『東國李相國集』을 통해 본 李奎報의 포스트휴머니즘*

윤인혀**

- ‖차례‖

- I. 序論
- Ⅱ. 다른 種에 대한 愛憎
- Ⅲ. 他 階層에 대한 동정
- IV. 自然과 非人間에 대한 畏敬心
- V. 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白雲 李奎報의 시문학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을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백운은 『東國李相國集』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파리ㆍ쥐ㆍ거미 등과 같은 미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하층민들에 대한 애증, 神에 대한 순응 등으로 표현하였다. 백운이 이런 미물과 짐승 그리고 다른 계층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자연에 대한 순용적 태도를 취한 이유는 그가 처한 신분상의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태어난 지 2년 후부터 시작된 고려의 무신 정권 시대를 살았던 백운은, 젊은 시절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호기롭게 내뱉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出仕가 讒言으로 중도에 폐하였고, 거듭된 求官에도 좌절을 맛보면서, 권력이라는 실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권력에 줄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보다 더 못한 계층이나 존재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불변의 진리인 자연 현상에 순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생존의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 이외의 존재들에 대도를 취하면서 생존의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 이외의 존재들에 대도를 취하면서 생존의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 이외의 존재들에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자신을 우월의 존재로 보지 않는 휴머니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백운이 행한 이런 경계 흐리기는 기존의 種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계층의 억압관계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찾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인간을 보는 방식과 관점을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환영받을 수 있는 세계관이다. 따라서 백운이 문학 작품을 통해 보여 준 이와 같은 태도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출발점으로 看做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제어: 李奎報,『東國李相國集』, 포스트휴머니즘, 경계 흐리기, 휴머니즘, 새로운 공동체 구성.

I. 序論

본고는, 白雲 李奎報(1168~1241)의 문학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탈경계적 현상들에서 관찰되는 혼종적이고 유동적인 인간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데.1)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포스트 휴머니즘은 근래 서구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다른 種뿐만 아니라 他 階層과도 평등함을 주창하는 주의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인간답게 사는가에 대한 물음의 시작이다. 인간과 비인간 곧 인간과 동물・남성과 여성・지배자와 피지배자 등을 구별하여, 주체를 우월적 존재로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 질서에 역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응한다는 것이다. 백운의 문학에도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가치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미물과 비인간적 존재를 통해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¹⁾ 이수진, 『인간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참조

백운의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그의 글에서 먼저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으로 해석될 작품을 살펴, 백운이 어떤 처지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인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점차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하면 인간성 회복을 가능케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될 것이다.

백운의 『東國李相國集』은 전집 41권, 후집 12권, 총 53권 13책의 목판본이다. 아들 涵이 1241년(고종 28) 8월에 前集 41권을, 12월에 後集 12권을 편집·간행하였고, 1251년에 칙명으로 손자 益培가 分司大藏都監에서교정·증보하여 개간하였다. 현전하는 것은 일본에서 입수하여 다시 간행했다는 李瀷의 주장²⁾에 따르면, 英正 시대의 복각본으로 추정된다.³⁾ 시문학은 권1부터 권18까지 古律詩 919제 1,206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古賦 6편도 실려 있으며, 권20에는 傳이 있고, 권21에는 '說' 12작품이, 권37에는 祭文이 실려 있다. 그리고 후집은 12권인데, 그 중 권1부터 권10까지 고율시 525제 846수가 수록되어 있다. 전·후집에 수록된 고율시만 2,052수이다.⁴⁾ 많은 시와 글을 남긴 대문장가 백운⁵⁾은 평생 무신 정권 아

²⁾ 李瀷, 『星湖僿說』, 제17卷「人事門」, '日本忠義'. "我國之李相國集國中已失, 而復從倭來刊行于世."

³⁾ 金東旭, 『국역 동국이상국집』, '해제', 고려서적주식회사, 1980, pp.16-17.

^{4) 『}東國李相國集』에 실린 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31제 36수, 제2권 48제 73수, 제3권 38제 62수, 제4권 43제 43수, 제5권 28제 43수, 제6권 89제 93수, 제7권 50제 58수, 제8권 41제 50수, 제9권 50제 63수, 제10권 60제 77수, 제11권 49제 68수, 제12권 51제 55수, 제13권 56제 76수, 제14권 63제 79수, 제15권 43제 64수, 제16권 70제 90수, 제17권 63제 77수, 제18권 46제 99수이며, 『東國李相國後集』에 실린 시로, 제1권 84제 105수, 제2권 57제 104수, 제3권 63제 101수, 제4권 59제 98수, 제5권 58제 89수, 제6권 45제 96수, 제7권 46제 97수, 제8권 39제 57수, 제9권 46제

래에서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민족적 사명감으로 서사시「東明王篇」을 짓기도 하였지만, 능력에 비해 관운은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出仕를 위해 東都[경주]에서 民亂이 일어났을 때, 종군 기자를 자처하여 3년 간참여하기도 하였다. 민란이 진압된 후 개성에 돌아온 후에는 論功行賞에불만을 드러내는 시를 지기도 하였지만, 벼슬자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出仕하기 위해 실권자인 최씨 정권에 벼슬을 구하는 시를 짓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최씨 정권과 함께 한 出仕이지만, 몽골 침략 시에는 문장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하6)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능력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천재 문인 백운 이규보가 그의 문학 세계에서 다른 種과 他階層, 그리고 자연과 비인간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어떤 삶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펼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다른 種에 대한 愛憎

포스트휴머니즘은 다른 種에 대해 인간이 지닌 우월성을 부정한다는 점

⁵⁸수, 제10권 28제 41수 등이다.

^{5) 『}東國李相國集』에는 백운이 同年 愈升旦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지은 시가 8,000여 수나 되었다고 하였다. 또 같은 글에서 백운 생전에 아들 함이 아버지 문집을 내기 위해 시를 수집하였으며, 1,000여 수 정도만 모였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로 미루 어보면, 백운의 문집은 그가 운명하기 몇 해 전부터 준비되었다.

李奎報,『東國李相國集』 27 元,「與愈侍郎升旦手簡」. "月日,某頓首. 予自弱齡嗜作詩, 想平生所著無慮八千餘首, 乃緣人取去不還, 或焚棄或見失, 掃箱篋無遺矣. 由是無意於成編, 近者愚息涵, 不知乃翁無似, 自謂有子而業文, 不集父詩, 大類無情者, 於是窮搜貪索, 或得於予所交遊儒家釋院, 或得於新學兒曹所蓄者, 凡集一千餘首, 猶未分卷, 但以一二三秩標之, 予不能止之, 任其所爲."

^{6) 『}高麗史節要』16. 高宗 28年 9月. "時蒙兵 壓境, 奎報 製陳情書表 帝感悟撤兵."

에 그 가치가 있다. 고려 시대 대문장가 백운은 다른 種 특히 동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를 살펴, 그의 포스트휴머니즘을 이끌어 내고자한다.

「放蟬賦」에는 매미가 거미줄에 걸려 처량하게 우는 장면을 소개한 곳이 있다. 이 글에서 백운이 매미를 풀어주자, 어떤 사람이 '거미가 당신에게 아무 害도 끼치지 않았는데, 왜 굳이 매미를 풀어주어 거미를 굶게 하느 냐?'고 핀잔을 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마를 찡그리고 대답조차 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한 마디의 말로써 그의 의아심을 풀어주되. <거미란 놈은 성질이 욕심을 내고, 매미란 놈은 자질이 깨끗하다. 배부르기만 구하는 거미의 욕심은 채우 기가 어렵지만은 이슬만 마시는 매미의 창자에서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저 욕심이 많은 거미가 이 깨끗한 매미를 위협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왜 매우 가는 실은 입으로 토해 내어 그물을 만들 어 내는지 아무리 이루(離婁, 눈 밝은 사람) 같은 밝은 눈으로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 지혜롭지 못한 매미로서 어떻게 자세히 엿볼 수 있겠는 가?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그 그물에 걸려서 날개를 쳐도 더욱 더 얽히기만 하였다. 제 이익만 구하려는 청승(靑蠅, 쉬파리로 소인에 비유)들 은 온갖 냄새를 따라 비린내만 생각하고 나비도 향기를 탐내어 마치 미친 듯 이 바람을 따라 오르내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물에 걸릴지라도 누구 를 원망하랴. 본래 그 허물이 너무 탐내고 구하려는 욕심 때문인데, 너는 오직 남과 더불어 아무 다투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악독한 그물에 걸렸을까? 너의 몸에 뒤얽힌 거미줄을 풀어놓고 너에게 다음과 같은 간곡한 말로 부탁하 노라. <높은 숲을 찾아 가서 아름다운 그늘의 깨끗한 곳을 가려서는 자주 옮 기지 말지어다. 이런 거미들이 엿보고 있다. 한 곳에만 오래 있지 말라. 螳螂 이 뒤에서 노리고 있다. 너의 去就를 조심한 다음이라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7)

위의 자료문은 매미에 대한 예찬이다. 매미는 욕심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거미는 교활하기 짝이 없다. 이슬만 먹고 사는 매미에비해 배부름만 구하는 거미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실로 그물을 만들어자질이 깨끗한 매미를 덫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다. 온갖 이권과 권력을 탐하는 쉬파리나 나비 등은 욕심 때문에 거미가 쳐 놓은 그물에 걸려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겠지만, 본성이 깨끗한 매미는 실수로 함정에 빠진 상태이다. 그래서 놓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다시는이 더러운 곳에 오지 말고, 깨끗한 세상인 깊은 숲에 들어가서 거취를 조심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라'고 하였다. 같은 미물이라도 욕심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감정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우거진 숲 시원한 그늘 즐겨 찾는 매미야, 몸은 작은데 소리는 어찌 그리 우렁찬가? 외로운 나그네 근심스레 듣는 줄 모르고, 여러 숲 옮겨가며 진종일 울고 있네. 喜擇深深美蔭清, 質何微小韻何宏. 不知孤客偏愁聽, 移遍千林盡日鳴.8)

깊은 숲으로 옮겨간 매미는 소리도 우렁차게 울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시적화자는 근심이 가득하다. 아마도 시적화자는 權謀術數가 난무한 인간 세상을 떠나지 못해. 그 매미 소리가 더욱 근심스럽게 들리는지도 모

⁷⁾ 李奎報,『東國李相國集』 411 · 7. 於蟬賦』 "子初矉額而不答,俄吐一言以釋疑,蛛之性貪,蟬之質清,規飽之意難盈,吸露之腸何營,以貪汚而逼清,所不忍於吾情.何吐緒之至纖,雖離婁猶不容晴,矧茲蟲之不慧,豈覘視之能精,將飛過而忽買,翅拍拍以愈嬰. 彼營營之青蠅,紛逐臭而慕腥,蝶貪芳以輕狂,隨風上下而不停.雖見罹而何尤,原厥咎本乎有求,汝獨與物而無競,胡爲遭此拘囚,解爾之纏縛,囑汝以綢繆. 遡喬林而好去,擇美蔭之淸幽,移不可屢兮.有此網蟲之窺窬.居不可久兮,螗蜋在後,以爾謀愼爾去就.然後無尤."

⁸⁾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蟬」、

를 일이다. "가을 만난 거미들, 처마 끝에 그물 치네. 뒷걸음치면서 실을 걸어, 빠르기가 북질하는 것 같네. 아이들이 낚싯대로 거두면, 떨어진 실끝 바람에 날리지만. 순식간에 다시 이룬 그물. 섬세한 조직 말도 못할레라. 날던 매미가 잘못 걸리면, 물레 소리 내며 슬피 울고. 오가는 나비 한 번만 걸리면, 아무리 날려 해도 저만 괴롭지. 나는 본래 그물 벌레를 미워하여. 종들 불러 걸린 벌레 놓아주라지. 모든 혈기 있는 동물치고. 누구라고 안 먹고 살라마는. 저 큰 범과 곰은. 짐승도 가려 먹고 발바닥도 핥으며. 저 작은 닭이나 오리들은, 썩은 흙에서 벌레를 쪼네. 이런 유가 하나뿐이랴만, 어찌 너만을 미워할까? 내가 미워하는 건 너의 교활함이란다. 너의 교활함 뉘라서 짝하리. 뱉는 실 잠사보다 더 가는 것을. 뱃속에서 모두 꺼내어. 이 것으로 모든 벌레 유인하니, 어리석은 벌레들 어찌 속지 않으랴."9)라고 하 여, 역시 거미의 교활함에 대해 비판적이다. 48세 전후의 作으로 보이는 이 「蛛網」은 여전히 신변이 불안한 상태이다. 그래서 거미줄에 걸린 미물 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初拜正言有作」에서 "팔년 동안 임금 옆에서 모시 다가, 늙어서야 서원(중서성)을 맡게 되었네. 한평생 말없이 침묵만 지켰더 니. 사람들이 말없는 늙은 정언이라 하네."10)라고 한 것처럼. 처음 正言 벼슬이 된 후 그 감회를 읊은 시이다. '正言'이라는 벼슬은 임금 곁에서 바 른 말하는 관직이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언이라고 했으니. 당시 백운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鏡說」에서 좋은 시절이

⁹⁾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4권,「蛛網」,"蜘蛛乘秋候,緣霤工織網.蟹足行掛絲,疾若梭來往. 兒童黏以竿,遺片隨風颺. 須臾復結成,織細不堪望. 飛蟬誤見絓,空作繰車響. 胡蝶亦來縈,翻翻徒自强. 我本疾網蟲,呼奴釋且放. 凡有血氣者,口腹誰不養. 大則虎與熊,擇獸行舐掌. 小則鷄與鶩,啄蟲於糞壤. 若此非一類,胡獨憎爾狀. 機巧吾所忌,汝巧誰與仇. 吐絲細於蠶. 不惜腹中纊. 以此引癡蟲. 焉得不見誑."

¹⁰⁾ 위의 책,「初拜正言有作」、"八載花甎沐帝恩, 白頭方始直西垣. 平生口訥如囊括, 人 導無言老正言."

오면 흐린 거울을 닦겠다고 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못생긴 사람들이 판을 치는 지금 괜히 깨끗한 척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망」은 무신 정권하에서 삶을 살았던 백운 자신의 모습을 매미에 의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 때문인지 매미에 대한 동정심은 끝이 없다. 반대로 거미줄은 出仕에 걸려들 수 있는 함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면에서 매미나 거미 등은 모두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다. 힘없고 나약한 존재에 대해 애정이 더 깊다. 아마도 무신 정권 시절 운신의 폭을 조심해야하는 문인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없는 정언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백운은 좋아하는 미물도 있고 싫어하는 미물도 있었던 것이다.

싫어하는 대상이 거미만은 아니다.

닭이 우는가 착각시킴을 미워하고, 흰 옥에 점 남기는 것 꺼린다. 좇아도 가지 않으니, 왕사의 쫓김 당하는 것 당연하다. 疾爾誤鳴鷄, 畏爾點白玉. 驅之又不去, 官見王思逐.¹¹⁾

파리는 귀찮은 존재이다. 제1구는『詩經』,「齊風」'鷄鳴'篇에 나오는 내용12)을 인용한 것이다. 옛날 어진 后妃가 임금을 모시고 있으면서 임금이 조회에 늦어질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늘 경계하다가 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는 닭의 울음소리로 여겨 임금을 깨웠다는 내용이다. 『詩經』은 后妃의 덕을 읊은 것인데, 백운은 닭의 울음소리로 착각시킨 파리를 단순히 미워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흰 옷에 파리똥을 남김과 귀찮게 따라 다니는 파

¹¹⁾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3권、「蠅」、

^{12) 『}詩經』、「齊風」'鷄鳴'篇. "雞旣鳴矣, 朝旣盈矣, 匪雞則鳴, 蒼蠅之聲."

리를 魏나라 王思의 고사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삼국시대 위나라 왕사가 글씨를 쓸려고 하는데, 파리가 붓 끝에 앉자 두세 번 쫓았으나다시 날아오니, 왕사가 화가 나서 일어나 파리를 쫓았다. 그래도 되지 않자붓을 땅에 던지고 밟아 망가뜨렸다는 이야기이다. 한없이 귀찮은 존재이다. "평생토록 너희들이 사람 쫓아다니는 것을 미워하지만, 특히 귓가에서싸우는 것이 밉노라. 앓는 중에 더욱 심한 병을 만나니, 이 미물을 번식시킨 하늘이 원망스럽구나."13)라고 하여, 병중에 귀찮게 구는 파리보다 그파리를 많이 만든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쫓고 쫓아도 되돌아오니힘 또한 지쳐, 이불을 덮고 잠 청하지만 꿈속에 들기 어렵네. 사람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야 탓하여 무엇하리, 날다가 술잔에 빠져 죽는 것도 모르는데."14)라고 하여, 다소 연민의 정이 있다.

너는 참언하는 사람 같아 내가 본디 두려워했지만, 汝似讒人吾固畏, 임시로 술잔 함께 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네. 不妨權許共盃卮. 빠져서 죽을 처지에 처한 것이 가여워, '墮來輒死眞堪惜, 조심스레 건져준 자애를 잊지 말아라. 莫忘殷勤拯溺慈.¹⁵⁾

본디 파리의 모습이 아첨하는 사람의 손모양 같아서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잠시 술잔 위에 앉는 것을 허락하여 대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금방 술잔에 빠져 허우적거리니, 조심스레 건져 자애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파리는 마치 권력자의 주변에서 온갖 참언을 일삼는 간신배의 모습이다. 여기

¹³⁾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31 记,「又病中疾蠅」. "平生狀汝逐人偏,第一深憎鬪耳邊,,病裏逢來重值病,滋繁此物怨皇天."

¹⁴⁾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睡次疾蠅」 제1수. "驅去還來力亦疲, 掩衾謀睡 夢成遲. 干人身分何須責, 飛墮盃觴自不知."

¹⁵⁾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4권、「拯墮酒蠅」、

저기 옮겨 다니면서 추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권력의 달콤함에 젖어 자기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술잔에 빠진 파리는 마치 권력자에 빌붙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간신배로, 또는 그 권력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백운 자신도 젊은 날첫 벼슬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간신배를 파리에 비유하여, "일찍이 앵앵거리는 파리에게 욕봤기에"16)라고 표현하였다. 백운의 이런 태도는, 미물 곧권력자들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간신배들에게도 연면의 정을 느꼈다는 것이다.

백운이 지녔던 미물에 대한 애정이 파리 이외에도 더 있다. 술잔에 빠진 누렁 나방에 대해서는 "가을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 그 향기 어찌 술만 못하겠느냐?"¹⁷⁾라고 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냈으며, "사람은 천생의 물건을 훔치는데, 너는 사람의 훔친 것을 훔치는구나. 다 같이 먹기 위해 하는 일이니, 어찌 너만 나무라라."¹⁸⁾라고 하여, 물건을 훔쳐 먹다가 붙잡힌 쥐를놓아 주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마구 날뛰는 쥐를 저주하기도 하는데, "너희를 제어할 것은 고양이이지만 내가 기르지 않는 것은, 성품이 본래 인자하여 차마 악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나의 덕성을 알아주지않고 날뛰어 저촉되는 짓을 하게 된다면 너희를 응징하여 후회하게 할 것이나, 빨리 나의 집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고양이를 풀어서 하루에 너희 족속을 도륙하게 하여, 고양이의 입술에 너희 기름을 칠하게 하고, 고양이의 뱃속에 너희 살을 장사지내게 할 것이다."¹⁹⁾라고 하여, 자신의

¹⁶⁾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제10권, 「草堂與諸友生置酒, 取王荊公詩韻各賦之.」. "曾被營營來點白."『詩經』「小雅」、青蠅、理 註에 "詩人以王好聽讒言, 故以青蠅飛聲 比之, 而戒王以勿聽也."라고 하여, 파리를 참소 잘하는 간신에 비유하였다.

¹⁷⁾ 위의 책,「又有黃蛾墮觴輒死」, "秋花多小發, 香豈不如醅."

¹⁸⁾ 李奎報,『東國李相國集』 和16권,「放鼠」."人盗天生物, 爾盜人所盜. 均爲口腹謀, 何獨於汝討."

인자함을 보이면서 은근히 협박하였다.

고양이 기르는 것은 너희들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畜猫非苟屠爾曺. 네가 고양이를 보고 스스로 숨기를 바라서이다. 欲爾見猫深自竄. 너희들은 어째서 숨지 않고 胡爲不遁藏, 도리어 벽과 닦을 뚫고 들락날락 하느냐. 穴壁穿墉來往慣. 나와서 노는 것도 교활한데. 出游已云頑. 하물며 광란을 부린단 말인가? 矧復狂且亂. 시끄럽게 싸워 잠을 방해하고. 鬪喧妨我眠. 약삭빠르게 사람의 음식을 훔치누나. 竊巧奪人饌. 고양이가 있는 데도 너희들이 날뛰는 건, 猫在汝敢爾. 실은 고양이의 재주가 없어서이다. 實自猫才緩. 고양이가 제 구실 다 못했다 하여도, 猫職雖不供. 너희들의 죄는 역시 꿸 만큼 가득하다. 汝罪亦盈貫. 고양이는 매질로 쫓아낼 수 있지만 猫可鞭而逐. 너희들은 잡아 묶기 어렵다. 汝難擒以絆. 쥐야, 쥐야 그 버릇 고치지 않는다면, 鼠乎鼠乎若不悛, 다시 사나운 고양이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更索猛猫懲爾慢.20)

어디까지나 미물에 대한 관대함이다. 사나운 고양이를 풀어 놓기 전에 알아서 집에서 나가 달라는 것이다. 제 구실은 못하는 고양이는, 마치 자기할 일을 하지 않는 고려 조정의 대신들을 비유한 것 같다. 검은 새끼 고양이를 얻고는 "보송보송 푸르스름한 털, 동글동글 새파란 눈. 생김새는 범

¹⁹⁾ 李奎報,『東國李相國集』、利20권,「雜著」,「呪鼠文 幷序」. "制爾者貓, 我豈不畜, 性本于慈, 不忍加毒. 略不德我, 奔突抵觸, 喻爾懲且悔, 疾走避我屋. 不然放獰貓, 一日屠爾族, 貓吻塗爾膏, 貓腹葬爾內."

²⁰⁾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鼠狂、長短句」、

새끼 비슷하고, 우는 소리 집사슴 접준다. 붉은 실끈으로 목사리 매고, 참 새고기를 먹이로 준다. 처음엔 발톱 세워 기어오르더니, 점차로 꼬리치며 따르는구나. 내 옛날엔 살림이 가난타 하여, 중년까지 너를 기르지 않아. 쥐 떼가 제멋대로 설치면서, 날이 선 이빨로 집을 뚫었다. 장롱 속에 옷가지 물어뜯어, 너덜너덜 조각 베를 만들었구나. 대낮에 책상 위에서 싸움질하여, 나로 하여금 벼룻물 엎지르게도 했다. 내 그 행패가 몹시 미워, 장탕의 옥사를 갖추려 했지만. 빨리 달아나므로 잡지는 못하고, 공연히 벽만안고 쫓을 뿐이다. 네가 내 집에 있고부터는, 쥐들이 이미 움츠러들었으니. 어찌 담장만 완전할 뿐이랴, 됫박 양식도 보존하겠다. 권하노니 공밥만 먹지 말고, 힘껏 노력하여 이 무리를 섬멸하라."21)라고 하여, 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여전하지만, 고양이가 빨리 자라서 그 무리를 내쫓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백운이 전주목 사록 겸 서기에서 쫓겨난 후 서울에 돌아온 34세에 지은 시이다. 이 무렵(34세) 지은 또다른 시에 "누가 너에게 혼자 곧으라 하여, 세태 따라 처신하지 못하게 했는가? 무고함을 되풀이하면 마침내 믿게 되는 것, 바로 너무 청백한 것 때문에 좌죄되었네."22)라고 하여, 곧은 소리하다 벼슬자리에서 쫓겨났음을 보여주었다. 「得黑貓兒」도 이 무렵 지은 시로 집의 담장을 뚫고 장농의 옷가지를 물어뜯는 쥐떼들을 섬멸할 검은 고양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마치무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날뛰는 간신배를 앞으로 힘을 길러 물리칠 것임

²¹⁾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제10권, 「得黑貓兒」, "細細毛淺靑, 團團眼深綠. 形堪比虎兒, 聲已懾家鹿. 承以紅絲纓, 餌之黃雀肉. 奮爪初騰蹂, 搖尾漸馴服. 我昔恃家貧, 中年不汝畜. 衆鼠恣橫行, 利吻工穴屋. 齩齧箱中衣, 離離作短幅. 白日鬥几案, 使我硯池覆. 我甚疾其狂, 欲具張湯獻. 捷走不可捉, 遶壁空追逐. 自汝在吾家, 鼠輩已收縮. 豈唯垣墉完, 亦保升斗蓄. 勸爾勿素餐, 努力殲此族."

²²⁾ 위의 책,「自嘲 入京後作」、"誰使爾孤直, 不隨時卷舒, 誣成市有虎, 正坐水無魚."

을 다짐하는 듯하다.

이[虱]와 개에 관해서 정서를 드러낸 곳도 있다. 『東國李相國集』의 「虱犬說」은 사물의 효용성을 배제한 채 개와 이의 죽음을 동일시 한 글이다. 어떤 客이 몽둥이로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자, 서술자는 불에 타 죽는 이를 보니 불쌍해서 다음부터 이를 잡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客이 '개와 이는 효용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다른데 어찌 동일시하면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가'로 반문하니, 서술자는 생명을 지닌 것들은 모두 소중하다고 답변하였다. 다소 사물의 효용성을 망각한 논리이지만, 사물의 존재 가치를 존중한 사고이다. 하지만 자기목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재상이 노상 이를 잡는 건, 나 아니고야 또 누가 있겠는가? 어찌 타오르는 화로불이 없기야 하겠나마는 땅에 던져 버리는 것이 나의 자비이다."23)라고 하여, 역시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물어 괴롭힌다면, "더듬어 찾아내어, 불에다 던진다. 불이 받아주지 않으면, 굶주린 개미에게 던져 준다. 개미도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의 손톱이 또한 죽인다. 이야, 이야, 너의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24)라고 하여, 이에게 훈계까지 한다.

개에 대해서는 '짖지 말아야 할 대상과 지어야 할 대상을 구별'하여 서술 하면서²⁵⁾ 만약 내 말을 잘 들어 장차 내가 신선이 된다면 너를 하늘로 함 께 데리고 갈 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개를 타이르기까지 한다.

²³⁾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42, 「捫蝨 三首 중 第一首」,"宰相長捫蝨,非予更有誰, 豈無爐火熾, 投地是吾慈"

²⁴⁾ 李奎報,『東國李相國集』 419년,「虱箴」,"捫之搜之,投畀火熾. 熾火不受,投畀饞 蟻. 饞蟻不受,爪甲亦利. 蝨兮蝨兮, 毋促乃死."

²⁵⁾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제20권, 「命斑獒文」, 개에게 당부하기를, 직책 높은 관리와 책을 끼고 다니는 선비들에게는 짖지 말고, 도둑이나 무당, 귀신 등에게는 짖고 살쾡이나 쥐 등이 담을 뚫고 들어오면 물어 죽여라고 하였다.

우리 집이 비록 가난은 해도, 我家雖素貧. 나라에서 받는 녹이 허다하니. 食祿許多斛. 네가 더러운 오물을 먹을까 하여, 恐爾舐穢物. 날마다 밥을 먹였거늘. 亦許日飡穀. 어찌하여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胡奈不知足, 넣어 두었던 고기를 훔쳤느냐. 盜我所藏肉. 주인 따르는 네 정은 가상하지만, 戀主雖可奠 교묘하게 도둑질한 소행은 참으로 나쁘다. 巧偷良不淑. 나는 수중에 지팡이 있으니. 我有手中杖. 너를 때려 혼내줄 수 있다마는. 鞭之足令服. 집을 지켜주는 임무가 막중하기에, 守門任莫重, 차마 참혹하게 너를 때리지 못하노라. 未忍加慘酷.26)

녹을 먹는 집안이기에 날마다 개 너에게 밥을 주었지만,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고기를 훔쳐 먹느냐? 그런 도둑질은 나쁘기 때문에 지팡이로 맞을 만하지만 그래도 집을 지켜주는 임무가 있어 차마 때리지는 못하겠다. 여전히 다른 중에 대한 동정심이 묻어 있다. 이 밖에도 "도시 말할 줄 알았기에 그물에 잡혀"²⁷⁾ 온 앵무새에 대한 연민과 "먹이를 찾으면 암컷불러 함께 먹고, 수컷임을 과시하여 적 만나면 싸운다."²⁸⁾라고 하여, 다섯가지 덕을 지닌 닭을 예찬하기도 하고 "더러는 미인의 부채에 얻어맞기도하고, 시인들의 주머니에 잡혀들기도 하네."²⁹⁾와 같이 개똥벌레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표현하였다.

백우은 더 나아가서 利物에 대해서는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성한

²⁶⁾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諭犬」.

²⁷⁾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0권,「鸚鵡」. "都爲能言見罻羅."

²⁸⁾ 위의 책. 「詠鷄」. "索食呼雌共. 誇雄遇敵爭."

²⁹⁾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2권,「螢」,"時見美人羅扇撲K,苦遭詩客絹囊收."

뽕잎이, 네 몸을 길렀다. 흰 솜을 뽑아내니, 그 따스함이 봄과 같다. 아교가 꺾이는 추위에도, 사람을 얼게 아니한다. 아 너의 솜씨, 신기하고 신기하도 다."30)라고 하였으며, "고운 비단 수놓은 비단이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31)와 같이, 누에에 대한 고마움과 "꽃을 따서 만드는 꿀, 엿과 같구나. 기름과 짝을 이루니, 그 용도가 무궁하도다. 사람들은 마구 긁어내어, 바닥을 보고야 그만둔다. 네가 죽지 않은 한, 사람의 욕심이 그치겠는가."32)라고 하여, 꿀벌의 근면함을 예찬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경계하였다. 백운은 미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겼다.

주주공(닭)은. 朱朱公. 벌레 쪼아 먹기를 좋아한다. 好啄蟲. 나는 차마 볼 수 없어서. 予不忍視, 물리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네. 斥勿使濔.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汝莫怨我爲, 살리기 좋아하는 것이 본래의 바람이네. 好生本所期. 나는 지금 은퇴하여 한가하게 살면서, 我今退老疏散, 朝會하는 때 늦고 이름 관계없네. 不卜朝天早晏. 어찌 새벽 알리는 소리 들을 필요 있겠나. 豈要聞渠報曙聲, 잠을 탐내서 오히려 창 밝는 걸 피하고 싶네. 貪眠尙欲避窓明.33)

³¹⁾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310 2, 「見人家養蠶有作」. "綃縠與羅綺, 莫不由茲生."

³²⁾ 위의 책,「蜜蜂贊」、"採花作蜜、惟飴之似、與油作對,其用不匱、人不廉取、罄倒乃已、汝若不死、人欲奚旣、"

³³⁾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和4권,「家有衆鷄, 匝宅啄蟲, 予惡而斥之, 因有詩」,"朱 朱公, 昔朱氏公化雞, 因號朱朱. 好啄蟲. 予不忍視, 斥勿使邇. 汝莫怨我爲, 好生本 所期. 我今退老踈散, 不卜朝天早晏. 豈要聞渠報曙聲, 貪眠尚欲避窓明."

백운은 '옛날에 주씨공이 닭으로 변했기에 닭을 주주공이라 한다.'라고 주를 붙였다. 닭은 본래 벌레 쪼아 먹기를 좋아하는데, 벌레를 죽이는 그모습이 싫어 나는 닭을 물리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백운은 미물뿐만 아니라 짐승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다. "소를 매질하지 말라 그 가련한소를, 소가 비록 네 소지만 매질해선 안 되리. 소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소를 미워해 매질하는고. 무거운 짐 싣고 만 리 길을 다녀, 너의두 어깨 피로함을 대신했고. 숨을 헐떡이며 넓은 밭을 갈아, 너의 배 불려주었다."34)라고 하였으며, "또 무거운 짐까지 운반하여, 모자란 인력을 보충해 주네. 하지만 이름이 소라 하여, 천한 가축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결세."35)라고 하여, 소를 학대거나 천하게 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였다.

백운이 미물과 짐승들에게 보인 애증은 다분히 생명 존중 사상이면서 포스트휴머니즘과 관련을 맺는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간의 고정된 관념에 서 벗어나, 만물은 평등하다는 사고의 유연성 차원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운의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은 무신정권 시대를 살면서 힘의 우위에 따라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는 시대 아픔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Ⅲ. 他 階層에 대한 동정

계층 사회이면서 무신 정권시대를 살았던 백운이 타 계층을 대하는 태

³⁴⁾ 李奎報,『東國李相國集』 邓2권,「莫笞牛行」."莫笞牛牛可憐, 牛雖爾牛不必笞. 牛 於汝何負, 乃反嗔牛爲. 負重行萬里, 代爾兩肩疲, 喘舌耕甫田, 使汝口腹滋."

³⁵⁾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제6권, 「斷牛肉」. "又能馱重物, 以代人力蹙. 雖然名是牛. 不可視賤畜."

도는 어떠했을까? 지배 계층의 시각에서 피지배계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계층의 억압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단초 를 만들어 줄 수 있기에 필요한 것이다.

남쪽 집은 부자요 동쪽 집은 가난한데, 南家富東家貧. 남쪽 집에선 歌舞가 흐드러지고 동쪽 집에선 哭聲만 들린다. 南家歌舞東家哭. 노래와 춤은 어찌 저리도 즐거운가? 歌舞何最樂. 손님이 마루를 메우고 술도 만 섬이 넘네. 賓客盈堂酒萬斛. 통곡하는 소리는 어찌 저리도 구슬픈가? 哭聲何最悲. 한기 도는 부엌 이레 동안 연기 한 점 안 오르네. 寒廚七日無煙綠. 동쪽 집 아이들 남쪽 집 바라보면서. 東家之子望南家, 마치 대 쪼개듯 한 마디 씹어 뱉는 말. 大嚼一聲如裂竹. '너는 보지 못하는가 석장군(석숭)이 날마다 君不見石將軍日 妓女끼고 금곡원에서 취해 지냈건만, 擁紅粧醉金谷, 수양산 餓夫의 깨끗한 이름 천고에 빛남만 같지 못한 것을.' 若首山餓夫淸名千古獨.36)

부자와 가난한 이의 삶이 대비된 시이다. 부자 집은 연일 가무와 기름진음식이 끊이지 않는데, 가난한 집은 굶주림에 곡성만 들릴 뿐이다. 고금의역사를 보아 방탕한 생활은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됨을 晋나라 甲富 석숭과殷나라 말기 餓夫 곧 백이·숙제의 충절을 대비하여 교훈적으로 끝맺었다. 따라서 백운은 당대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피지배층에 대한배려와 변하지 않는 절개의 중요함을 은연중에 보였다.

³⁶⁾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권、「望南家吟」、

풀과 나뭇잎 아직도 파랗건만. 林葉尚青青, 귀뚜라미 섬돌 밑에 울어대네. 蟋蟀鳴砌底. 부녀들이 벌써 가을에 놀라. 婦女已驚秋, 정성스레 길쌈해 둔다. 殷勤理機杼. 한 늙은 과부 손 모으고 獨有老孀嫗, 가는 여름 되돌아왔으면 하네. 拱手顧復暑. 계절에는 그 한도가 있거늘. 時節固有程. 오가는 게 어찌 그대 맘대로 될까? 淮银寧為汝. 단풍나무 붉어지려 하니. 園楓行欲丹. 입던 솜옷이나 어서 챙겨 두소. 爾可尋古絮.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答云是何言, 나는 본시 가난한 계집으로. 妾本最貧女. 입던 솜옷 벌써 잡혔으니. 故絮久已典. 새 옷을 누가 다시 주겠는가? 新衣誰復與. 가엾이 여긴 나는. 我聞惻然悲. 절로 동정심에 끌려. 心若掛私慮. 이처럼 어려운 때. 要趁窮愁時, 한 자의 베라도 돕고 싶네. 尺帛期可惠.37)

가을바람이 부니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어느 늙은 과부의 근심을 읊은 시이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솜을 넣고 누빈 옷을 준비해야하는데, 늙은 과부는 지난 해 입던 솜옷을 벌써 저당 잡혔다는 것이다. 그래서한 자의 베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백운 자신도 곡식이 없어 갖옷을 저당 잡혀 곤궁한 생활을 이어감을 읊었다. "삼월 십일일에, 아침거리 없어. 아내가 갖옷 잡히려 하기에, 처음엔 내 나무라며 말렸네. 추위가아주 갔다면, 누가 이것 잡겠으며. 추위가 다시 온다면, 난 오는 겨울 어찌

³⁷⁾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2권,「孀嫗嘆」.

하라고? 아내 대뜸 볼멘소리로, 당신은 왜 그리 미련하오. 그리 좋은 갖옷 아니지만, 제 손수 지은 것으로. 당신보다 더 아낀다오, 그러나 口腹이 보다 더 급한 걸요."38)라고 하여, 자신의 가난도 탓하였다. 아끼던 갖옷을 저당 잡히기 위해 하인이 가져갔는데, 좁쌀 한 말 주면서 '겨울이 올 때까지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핀잔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운은 이 시에서 이런 가난한 생활이 오게 된 것은 자신이 술을 좋아하고 말을 가리지 않은 채 함부로 한 탓으로 돌리면서, 빨리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한다고하였다. 자신의 어려움을 알기에, 어렵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늙은 과부에 대한 동정심도 사실적이다.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 왕손 公子들아 나를 멸시 말라, 그대들의 부귀영화 농부로부터 나온다. 帶雨鋤禾伏畝中, 形容醜黑豈人容. 王孫公子休輕侮, 富貴豪奢出自儂.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아전들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네. 힘써 농사지어 부국케함 우리들 농부거늘, 어째서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新穀青青猶在畝, 縣胥官吏已徵租. 力耕富國關吾輩, 何苦相侵剝及膚.³⁹⁾

한 여름 논바닥에서 김을 매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배 계층들의 안일한 삶을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³⁸⁾ 위의 책,「典衣有感,示崔君宗藩」、"季春十一日,廚竈無晨炊. 妻將典衣裘, 我初訶止之. 若言寒已退,人亦奚此為. 若言寒復至,來冬我何資. 妻却恚而言,子何一至癡. 裘雖未鮮麗, 是妾手中絲. 愛惜固倍子,口腹急於斯."

³⁹⁾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代農夫吟 二首」、

작물에 세금을 매기는 아전들의 苛斂誅求 또한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 법으로 농민들에게 청주와 쌀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나라법이 혹 잘못된 것 아니오. 높은 벼슬아치들은, 술과 음식에 물려 썩히고. 야인들도 나누어 갖고는, 언제나 청주를 마신다오. 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데, 농부들을 어찌 못 먹게 하는가?"40)라고 하여, 농부의 노동에서 음식도 나오고 술도 나오는데, 진작 생산자는 먹지 못하게 막는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농부를 부처처럼 존경하건만, 부처도 굶주린 사람은 살리기 어려우리."41)라고 하여, 굶주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부처가 아니라 농부라고 하였다. 다른 계층에 대한 신뢰감이다.

네 비록 士族의 집에 태어났으나, 밥을 비니 이미 비천하게 되었네. 더 이상 뭐가 부끄럽다고, 오히려 떨어진 두건 뒤집어썼을까? 汝雖生士族, 丐食已云卑. 更亦懷何恥, 猶蒙破羃雛.⁴²⁾

家勢가 기울어 이미 천한 상태가 된 선비의 딸에 대한 동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겨질 체면도 없는데, 무엇이 부끄럽다고 두건까지 뒤집어쓴 모습에 안타까움마저 배어난다. 반대로 하층민이라도 자기 業에 충실한 경우는 "솜씨 익숙하여 꿰맨 자국도 안 보이니, 그대는 참으로 늙은 갓장이로다."⁴³⁾라고 하여, 그 기술을 칭찬하였다. 백운은 이들 외에도 기생에 대한시를 남겼는데, 그 중 한 작품만 감상해 보자.

⁴⁰⁾ 위의 책 「聞國令禁農餉淸酒白飯」. "國令容或謬. 可矣卿與相, 酒食猒腐朽. 野人亦有之, 每飲必醇酎. 游手尚如此. 農餉安可後."

⁴¹⁾ 위의 책,「新穀行」, "我敬農夫如敬佛, 佛猶難活已飢人."

⁴²⁾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8刊、「士人女乞食、既以與之、因作詩、」

⁴³⁾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7권、「戯友人製冠」

하늘에 닿은 불꽃 놀처럼 붉어, 연기 속에 기생 곡소리 가늘게 들리네. 무정한 화재 왜 그리도 심하나? 화장대며 무관이 모두 타버렸네. 連天赫焰劇霞丹, 暗聽煙中哭翠鬟. 回祿無情何大甚, 粧臺舞館總燒殘.40

하층민에 속하면서도 언제나 상류층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기생들이다. 그런데 그런 기생의 집에 불이 났다. 그런데 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그래서 "내 만일 젊은 시절이라면, 머리카락 타는 것도 접내지 않았으리."45)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기생에 대한 나머지 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늙은 기생에 대한 연민 등이 주 내용이지만, 그래도다른 계층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애민의 정신을 드러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른 계층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과 조롱을 하였다. 백운은 「老巫篇 幷序」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쪽이웃에 늙은 무당이 있어 날마다 많은 남녀들이 모이는데, 그 음란한 노래와 괴상한 말들이 귀에 들린다. 내가 매우 불쾌하긴 하나 몰아낼 만한 이유가 없던 차인데, 마침 나라로부터 명령이 내려 모든 무당들로 하여금 멀리옮겨가 서울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한갓 동쪽 이웃에 음란하고요괴한 것들이 쓸어버린 듯 없어진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또한 서울(개성) 안에 아주 이런 무리들이 없어짐으로써 세상이 질박하고 백성들이 순진하여 장차 태고의 풍속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이런 뜻에서 시를 지어치하하는 바이다."46)라고 하여. 왜 무당들이 개성으로부터 쫓겨나야 하는

⁴⁴⁾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5권、「隣妓家火」、

⁴⁵⁾ 위의 책, 『又戱作』、"我若少年時, 焦頭猶不懼."

⁴⁶⁾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2권,「老巫篇 幷序」, "予所居東隣有老巫,日會士女,以 淫歌怪舌聞于耳,予甚不悅,歐之無因,會國家有勑,使諸巫遠徒,不接京師. 予非特

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목구멍 속의 새소리 같은 가는 말로. 늦을락 빠를 락 두서없이 지껄이다가. 천 마디 만 마디 중 요행 하나만 맞으면. 어리석 은 남녀가 더욱 공경히 받드니"47)라고 하여. 무당들을 惑世誣民의 대상으 로 여겨, 그 잘못됨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힌 곳이 있다. 백운 자신이 지난 해 8월부터 붉은 점이 생기는 피부병을 앓았는데, 130여 일 동안 여러 의원이 주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항간에서 권하는 말을 따라 바닷물로 목욕을 하니 깨끗이 나았다는 것이다. "뭇 소인과 비유하건대, 처음의 달콤한 말 듣기 좋으나. 웃음 속엔 칼이 감추어 있어. 군자에게 해만 될 뿐이. 찾아본 의원 마다 효험은 없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였네."48)라고 하여, 의원을 남을 속이는 소인배에 비유하였다.

한편으로 자신의 改嫁를 위해 어린 아이를 버린 비정한 어머니를 비난 한 시도 있다.

호랑이 사납다지만 제 새끼는 상하지 않게 하는데, 虎狼雖虐不傷雛, 어느 아낙이 아이를 길에다 버렸을까? 금년에는 풍년이라 궁핍하지 않는데, 개가한 여자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네. 也應新嫁媚於夫. 금년에 흉년 들어 굶주린다 하들. 어린 자식이 먹으면 몇 술이나 먹으라? 하루아침에 母子가 원수가 되었으니.

何嫗將兒棄道涂. 今歲稍穰非乏食, 若曰今年稍歉飢. 提孩能喫幾多匙. 母兒一日成讐敵.

喜東家之淫沃寂然如掃, 亦且賀京師之內無復淫詭, 世質民淳, 將復太古之風, 是用 作詩以賀之."

⁴⁷⁾ 위의 첵, 「老巫篇 幷序」. "喉中細語如鳥聲, ""哰無緒緩復急. 千言萬語幸一中, 騃 女癡男益敬奉."

⁴⁸⁾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제2권, 「理病詩 幷序」, "比如衆小人, 初以甘言快. 笑刀 藏其中, 覆爲君子害. 謁醫皆不效, 棄置無可奈."

각박한 인심 이미 알 것 같네.

世薄民漓已可知.49)

개가한 여인이 새 지아비에게 잘 보이기 위해, 풍년 든 해인 데도 전 남편 소생의 아이를 길가에 버렸다는 것이다. 비정한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이다.

儒者였던 백운은 승려에 대한 조롱의 시도 몇 편 남겼다. "탐내어 大道 [佛道]의 술지게미를 마셨는지, 바로 수향(꿈나라)의 지경에 이르렀네. 모국(毛鞠, 공)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 禪定에 들었는지도 모르니."50)라고 하여, 술에 취해 잠든 스님에게는 오히려 관대하다.

머리 기른 속인이나 삭발한 중이나, 勿論髮在與頭簡, 색 좋아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네. 好色人心摠一般. 만약에 석가여래 신통한 呪術 없었다면, 不有如來神呪力, 아난(부처 제자)도 하마터면 마등(음란한 여자)의 유혹에 빠졌으리. 摩登幾已誤阿難. 이 중이 옹졸한 짓 꾀하다가 잡혔으니, 此髠謀拙被人擒, 어찌 그 자들을 일일이 국법으로 다스리려 하는가? 國令何曾一一尋. 아이들을 낳게 내버려 두었다가 모두 성장하거든, 任遺生雛皆壯大, 모두 논밭으로 내몰아 농사짓게 할지어다. 盡驅南畝力耕深.51)

백운이 儒者라서 그런지 파계승에 대해서 다분히 희롱조이다. 승첩까지 받은 중이 세속인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옹졸한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⁴⁹⁾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路上棄兒」.

⁵⁰⁾ 李奎報,『東國李相國集』 317권,「嘲睡僧」."貪傾大道漿,正到睡鄉境. 毛鞠莫輕投. 安知不入定."

⁵¹⁾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1권,「聞批職僧犯戒被刑,以詩戱之」.

는 것이다. 이런 파계승의 행위를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니 그냥 두었다가 아들들을 낳아 장성하면 그들을 논밭으로 내몰아 농사꾼이 되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하였다.

백운은, 애민의 대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는 각성과 함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동정과 비판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동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Ⅳ. 自然과 非人間에 대한 畏敬心

20세기 서구의 과학적 관점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양인의 자연에 대한 관점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순응적이다. 동양인의 이런 관점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시각에도 얼마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백운의 '說'문학에도 자연에 대한 그의 순응적 관점이 드러난 작품들이 있다.

「壞土室說」은 백운의 자연관이 잘 드러난 작품 중의 하나이다. 화자인 李子가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집안에 흙을 파다가 무덤 같은 土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이유를 물으니, '토실은 겨울에 과일이나 꽃을 저장하기도 하고 길쌈하는 부인들의 손도 시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李子가 말하기를,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계절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괴이한 것이다. 옛날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

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 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 가 아닌데. 겨울에 굴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본성인데. 진실로 이와 반대가 된다 면 또한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 아닌 구경거리를 삼는 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 이 아니다."52)라고 하여, 土室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물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정복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雷說」에서는 "나는 천둥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다가. 여러 모로 잘못을 반성하여 별로 거리낄 만한 것이 없 게 된 뒤에야 조금 몸을 펴게 된다."53)라고 하여. 천둥소리를 두려워했다 는 것이다. 천둥소리는 天機와 같은 의미이다. 천기란, 하늘의 뜻으로 天 命이며 天意이다. 천둥소리가 하늘의 뜻이기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 의 허물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쁜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품 지 않았는지, 남이 칭찬하면 기뻐하는 안색을 보이고 비난하면 언짢은 기 색을 짓지 않았는지' 등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 현상을 통해 성 찰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하늘의 존재를 의식하였다. 백운 말년의 작 (1234, 67세)으로 「夢說」이 있다.

⁵²⁾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21 刊,「壞土室說」,"夏熱冬寒, 四時之常數也, 苟反是則為怪異. 古聖人所制, 寒而裘, 暑而褐, 其備亦足矣, 又更營土室, 反寒為燠, 是謂逆天令也. 人非蛇蟾, 冬伏窟穴, 不祥莫大焉. 紡績自有時, 何必於冬歟. 又春榮冬悴, 草木之常性, 苟反是, 亦乖物也. 養乖物為不時之翫, 是奪天權也, 此皆非予之志." 53) 위의 책,「雷說」,"予之聞雷, 始焉喪膽. 及反覆省非, 未覓所嫌, 然後稍肆體矣."

"내가 3품~4품의 벼슬에 있을 때부터 늘 꿈을 꾸면 큰 누각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는 큰 바다였으며 물이 누각 위까지 올라와서 잠자리를 적시는데, 나는 그 속에 누워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6~7년 동안이나 계속하였는데 깰 적마다 이상스럽게 여겼으며, 혹은 『周公夢書』로써 징험해 보고서 마음속으로 상서로운 꿈이라고 생각하였다. 경인년(1230, 고종 17)에 와서내가 아무 죄도 없이 獨島로 귀양 가서 나이 많은 어떤 司戶의 집에 의탁하게되었다. 그 집에는 높은 누각이 큰 바다를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있어 마치 훨훨 날아갈 듯한 기상이었고, 물이 집의 창문까지 치밀어 올랐으니, 꼭 꿈에보던 그 누각과 같았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전일의 꿈을 징험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의 출세와 은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모두가모르는 가운데 미리 정해지는 일일 것이다. 당시에는 꼭 그 땅에서 죽으려니하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가서 서울에 돌아와 지위가 정숭에까지 올랐으니, 이도 역시 하늘의 운명이 아니겠는가?"54)

「夢說」은, 백운이 63세(1230) 위도에 귀양 갔던 일과 그 이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사실을 강화도 천도 2년 후인 1234년 지은 說작품이다. 꿈속에서 현몽한 사실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으로, 운명론이 있어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天人相勝說」에도 운명론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백운이 32세 때 최충헌의 집에서 千葉榴花를 두고 시를 지은 후, 全州牧 司錄 겸 書記로 제수되어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通判郎將과사이가 좋지 않아 다음 해에 파직을 당했다. 파직을 당한 후에도 그 사람이중요한 요직에 있어 9년 동안 出仕를 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죽은 후.

⁵⁴⁾ 워의 첵,「夢說」"予自四三品時,常夢坐一大樓上,其下皆大海也,水到樓上,霑濕寢席,予臥其中.如是者六七年,每寤輒怪之,或以周公夢書驗之,心以爲瑞夢也.及 庚寅歲,以非罪流于猬島。請寄一老司戶之家.則有高樓正臨大海,翼翼翚飛,水亦 將拍于軒窓,眞若夢所見者.子然後方驗前夢矣.然則人之行藏榮辱,豈徒然哉,皆 預定於冥然者歟.當時擬必死於其地.未幾復京師.至登相位,是亦非天命歟."

비로소 벼슬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 사람이 이미 죽고 난 뒤 곧 그 해에 翰林에 보직을 받았고 따라서 여러 요직을 거쳐서 빠르게 높은 지위 에 올랐으니. 이것은 바로 하늘이 사람을 이긴 것이다."55)라고 하여. 운명 론을 강조하여, 하늘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자연물 중 비인간적 존재인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심을 드러낸 작 품들도 있다.

"「12월 26일 猬島로 들어가려고 배를 띄움, 幷序」

이날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保安縣의 諸公이 크게 조도연(祖道筵, 길 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을 베풀었다. 나는 술에 마구 취하여 배에 오른 줄도 몰랐다. 밤중에 중류에 다다랐는데 잠결에 뱃사공이 시끄럽게 '배 엎어진다 배 엎어진다'하며 떠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곧 놀라 일어나서 술을 떠 놓고 하늘에 빌며 크게 소리 내어 우니 얼마 안 되어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 이 돌면서 순조로웠다. 잠깐 사이에 甲君臺에 이르니 섬과 얼마 안 되는 거리 였다. 이로부터 사공들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하늘이 보호하니 경시할 수 없다'하였다.(是日將入島, 以保安諸公大設祖筵, 予醉倒, 不覺乘 舟. 半夜至中流, 睡中微聞舟人喧言, 舟將覆舟將覆. 卽驚起, 酌酒祈天, 因大 哭一聲, 未幾, 浪息風回, 風又極順. 俄頃至甲君臺, 距島無幾里. 自此篙工等 目予曰, 此翁天所扶護, 不可輕也云.)

밤중에 사공이 풍랑으로 시달리어. 취중에 놀라 일어나서 하늘에 빌었네. 영서[水神, 오자서]의 뜻 있음을 이제 경험하여. 외로운 신하의 한 번 통곡으로 물리쳤네. 退却孤臣一哭中."56)

半夜舟人久闲風. 醉中驚起訴天公. 靈胥有意今方驗,

⁵⁵⁾ 위의 책,「天人相勝說」"及其人已斃, 然後卽其年入補翰林, 因累涉淸要, 湍登高 位, 則此乃天勝人也."

전술한 「몽설」의 내용처럼, 위도로 귀양 갈 때의 일을 묘사한 시이다. 보안현(지금의 부안군) 諸公들이 祖道祭를 베풀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 이다. 祖道祭는 먼 길 떠날 때에 行路神에게 제사지내는 일로, 옛날 황제 의 아들 累祖가 여행길에서 죽었으므로 후대 사람들이 행로신으로 모신 것이다. 백운도 위도로 유배를 가야 하기에 여러 공들이 조도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조도제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배에 올라 잠든 채 얼마쯤 갔는 데, 어렴풋이 '배 엎어진다'는 뱃사공의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외로운 신하가 통곡하면서 水神인 伍子胥(춘추시대 吳나라 충신)에게 빌 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다. 神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백운은 두 번의 걸쳐 지방관으로 나간 적이 있다. 그때 남긴 祭神文에는 비인간적 존재인 神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 있다. 먼저 32세 (1199) 때 전주목 사록 겸 서기로 부임했을 때 지은 글로, 全州의 城隍에 제사 지내는 致告文에, '내가 이 고을로 부임해 와 보니, 주민들이 나물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실정인지라, 어떤 사냥꾼이 관례적으로 올린 노루・토끼・꿩 등을 바치지 못하게 매질까지 하면서 꾸짖었다.'57)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祭需로 육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왕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고집 스럽게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58)라고 하여, 너그럽게 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역시 전주에 머물 때 가뭄이 들자 "하늘의 못[澤]은 오직 용왕의 주도하는 바라, 용왕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으랴. 이때에 비를 얻는 것은 관리의 효험이 아니고, 바로 용왕의 공입니다."59)

⁵⁶⁾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7권,「十二月二十六日,將入猬島泛舟. 幷序」.

⁵⁷⁾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37권,「祭神文, 全州祭城隍致告文, 無韻」.

⁵⁸⁾ 위의 책, "未審大王諒之何如也, 伏惟寬之, 毋以予頑然不遵舊典也."

⁵⁹⁾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37권、「全州祭龍王祈雨文」、"天之澤惟龍所導、龍之請

라고 하여, 용왕에게 의지하였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다시 마포 대왕께 거듭 고하는 제문을 지어 올렸다. 그런데 처음 올린 내용과는 다르게 "제사의 베푼 음식에 고기를 쓰지 않고 나물만을 갖추었더니 바야흐로 사당을 떠나 말[馬]을 서서히 모는 찰나에, 어떤 사슴이 몹시 당황하여 미친 듯이 날뛰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고 말이 놀라 넘어지니 이것이 해괴한 일이라, 이리저리 생각해보건대, 어찌 귀신이 그 제사에 내가 고기를 쓰지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보답에 대한 사례의 인사가 늦었다 해서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인가? 어쨌든 제사 음식을 희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해서 사람을 사당에 보내어 잔을 드리노니, 그 흠항하여 나를 나무라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오."600라고 하여, 처음 지녔던 생각을 바꾸어육고기를 제사 음식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자연 재해 앞에 약해지는 백운의 모습이다.

백운이 52세(1220) 때, 탄핵을 받아 계양도호부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한 그 당시 계양 땅에도 가뭄이 심했다. 그래서 무능한 자신이 이 고을 의 원으로 와서 지금 이 고통을 고을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大王 은 기운을 타고 허공에 달려가서 상제 궁궐에 호소하여 우레와 번개 채찍 을 재촉해 사흘의 흐뭇한 비를 내려서 우리 곡식들을 적시어 가을의 수확 이 있게 해 주십시오."61)라고 하여, 하늘과 성황신에게 빌었다. 그래도 비 가 내리지 않자, "대왕은 이 땅의 것을 먹은 지가 오래거늘, 그 모른 체하고 구휼해 주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목숨을 의탁할 것입니까? 만약 하늘의 못

天豈不從. 在斯時而得雨, 非吏之效, 而乃龍之功."

⁶⁰⁾ 위의 책,「全州重祭保安縣馬浦大王文」"其於祀設,不肉而蔬,方離祠字,驅馬徐徐,有鹿蹶蹶,似將狂觸,吐血而斃,馬驚且仆,其祥可駭,思之反覆,神豈以予祀不饋肉,又豈警予報謝之遲,此可代牲,遺獻于祠,神其享之,莫我敢訾."

⁶¹⁾ 위의 책,「桂陽祈雨城隍文」."惟冀大王, 馭氣寥廓, 馳訴于大微紫極, 促雷鞭與電策, 賜三日之澤, 潤我黍稷, 俾克有穫."

[天澤]을 잘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비를 퍼부어 적셔 준다면, 이것이 바로 신의 직책이며, 따라서 원의 다행이고 백성들의 생명일 것입니다."⁶²⁾라고 하여, 재차 성황신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백운은 가뭄을 통해 자연의 위대 함을 몸소 느꼈다.

> 아름다운 벼 크지도 못한 채 반쯤 시들었으니, 嘉禾未秀半焦枯 오는 구름에게 묻노라 비를 내릴 건가 안 내릴 건가. 但問來雲作雨無 헐떡이며 물 퍼서 대는 것 참으로 우습기만 한 게, 榾榾灌田眞可笑 천 이랑을 한 방울 물로 축이려는 것 같구나. 千畦一滴若為濡(3)

백운은 자연 앞에서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神은 기원의 대상이다. "하늘이여 우리 백성 버리지 말고, 다행히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오."64)라고 하여, 하늘에 매달렸다. 백운은, 젊은 시절 논리의 타당성과 愛民을앞세워 神을 모시는 일보다 피지배층의 생계가 우선임을 주장하였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연륜이 쌓일수록 비인간적인 존재를 인정하면서 외경심마저 지녔다. 백운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고려 무신시대를 살았던 백운만의생각은 아닐 것이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함에 숙연해질수밖에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백운은 후대의 삶으로 오면서 자신의 존재가 우주의 만물 중에 일부분임을 깨닫는 동시에, 비인간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창고의 곡식으로 빈민구제하자 연해 비오니, 하늘이 백성 사랑함을 비로소 알겠다."65)라고 하여,

⁶²⁾ 위의 책,「又祈雨城隍文」."大王之食茲土久矣, 其恬然不恤, 則安所託命耶. 若導宣 天澤, 小加雱潤, 是神之職也, 吏之幸也, 民之命也."

⁶³⁾ 李奎報、『東國李相國集』 제10권、「旱天見灌田」、

⁶⁴⁾ 李奎報、『東國李相國後集』 제9刊、「渴雨」、"天不棄我民、庶賜膏一滴、"

⁶⁵⁾ 李奎報,『東國李相國集』和15권,「書衿州倉壁上」,"發廩賑貧仍得雨,始知天意愛

하늘의 뜻을 알고 진휼을 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었다는 천명사상까지 보였다. 따라서 백운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비록 무신 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자연 재해라는 역경을 전제로 하였지만, 자연의 질서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의 시각을 넘어 포스트휴머니 즘의 시각에 접근한 것이다.

V. 結論

詩는 시인의 생각과 사상이 잘 반영된 문학 장르이기에, 그 시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검토하기에 시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백운의 시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도 알 필요가 있다. 작품 창작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백운의 집안은 아버지 대에 와서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한미한 집안이었다. 出仕한 부친 李允綏는 무신 난 이후 관직도 올라 명종 16년(1186)에 정5품 戶部郞中이 되었다. 이처럼 백운의 집안은 무신 난을 계기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집안이었다. 백운도 무신 정권 5대째인 최충헌이 정권을 잡은 후(1196), 벼슬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23세 때 과거에급제하였지만 등용되지 못한 채, 약 9년을 보내다가 첫 부임지로 전주목사록 검서기에 부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과거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씨정권의 천거제로 출사한 경우이다. 백운의 나이 32세(1199) 때, 최충헌의집에 핀 석류꽃을 예찬한 시가 계기가 되어 전주목 사록 겸 서기로 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못가 파직되었다. 이후 구관시를 지어 벼슬자

리를 구했지만, 뜻을 얻지 못하고 결국 최우의 도움으로 한림원에 임시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사적인 관계에 의존한 천거제가 백운 당시의주 등용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후 52세 계양도호부부사로 좌천된 것과 63세 때에 잠시 猬島로 귀양 간 것을 제외하면 승승장구하여 요직을 거쳤다.

백운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그 집안의 중앙정계 진출과 그의 출세는 무신의 난과 관련이 깊다. 특히 백운의 관직 생활은 최우와의 관계를 떼어 놓고 말하기 어렵다. 무신들 중 최씨 정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문신들 특히 지방의 한미한 집안의 선비인 신흥 사대부들을 등용하여 지지 기반을 다졌다. 백운 집안의 중앙정계 진출과 그의 득세도 이런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존 고려의 귀족 집안이었던 인물들은 배격 당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세재였다.

백운이 남긴 『동국이상국집』에는 권1에서부터 권18까지 시가 실려 있다. 그런데 전주목 사록 겸 서기에 부임하기 전인 30세 초반까지의 시가모여 있는 제1권부터 제9권까지는 미물에 대한 시가 거의 없다. 그래도 제10권에 처음 보이는 「得黑貓兒」는, 전주목 사록 겸 서기에서 파직된 후에나온 작품으로, 새끼 고양이가 빨리 자라서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쥐들을빨리 섬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는 백운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자신을 내몰았던 간신을 이 고려 조정에서 몰아내고 싶은 심정을 반영한 듯하다. 이후 작품에서 미물이나 짐승들에 대한 백운의 태도는 애증을 동반하였다. 욕심이 많은 거미와 귀찮은 존재 파리 등 미물들을 미위는 하지만, 그들을 결코 해치지는 않았다. 이는 무신 정권 시대를 살아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 그 힘없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스스로가 나약해지면 더불어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남달라지기 때문이다. 과부가 홀아비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리 듯, 무신 정권의 칼날 밑에서 언제나 숨 죽여야만 했던 고려 문신의 同病相憐의 처지가 미물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된 듯하다.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연민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 으로 삼았다. 농부・늙은 과부・갓 만드는 장인・몰락한 士人의 딸・기생 등에 대해서 관심과 연민의 정을 보였다. 백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배 계층에 대해 헌신하는 계층과 어려운 삶에도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작은 몸짓에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정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당이나 자신의 또 다른 행복을 위해 자식을 길가에 버리고 개가한 부인과 음탕한 짓을 한 승려. 그리고 실력 없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비난과 조롱을 가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사랑 받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면서 그들의 반성을 통해 일상적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기에 혀실에서 버림받은 나약한 존재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백운의 소외되 고 버림받은 계층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출발점이라 고 해고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타 계층에 대한 애정은 새로운 공동체 를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연 존재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존재들에 대한 외경심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참고문헌】

1. 基本資料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詩經』,藝文印書館,1981.

周敦頤,『周子全書』, 商務印書館, 197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高麗名賢集1 收錄本,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3. 『東國李相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조.

『국역 동국이상국집』. 고려서적주식회사. 1980.

『高麗史節要』16.

李 瀷,『星湖僿說』.

李 瀷,『星湖全書』, 驪江出版社, 1984.

2. 論著

金慶洙, 『李奎報 詩文學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6.

金鎭英。『李奎報文學研究』、集文堂、1984、

- 金倉圭,「翰林別曲의 背景的 考察: 李奎報의『東國李相國集』을 통하여」, 國語教育 論志10. 大邱教育大學, 1983.
- 金泰旭, 「高麗 武人政權期 『東國李相國集』의 편찬과 간행」, 아시아문화 12,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6.
- 金皓東, 「高麗 武臣政權時代 文人 知識層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朴性奎, 『李奎報研究』,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2.
- 朴宗基,「東國李相國集에 나타난 高麗時代相과 李奎報」, 震檀學報 83, 震檀學, 1997.
- 朴菖熙,「東國 李相國集 作品年譜考」, 梨花史學研究 5, 梨花史學研究所, 1970.
- 尹寅鉉,「答全履之論文書에 나타난 李奎報의 문학관」, 『韓國古典研究』 제8집, 韓國古典研究學會, 2002.
- 尹寅鉉,「李仁老와 李奎報 漢詩의 對比 고찰」,『語文研究』제32권,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4.
- 尹寅鉉,「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에 나타난 歷史意識의 문제점」,『韓國漢文學研究』 제38집, 韓國漢文學會, 2006.

- 尹寅鉉,「白雲 李奎報 文學에 있어서의 桂陽」,『韓國漢文學研究』제49집, 韓國漢文 學會, 2012.
- 尹寅鉉, 「李奎報'說'에서의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제52집, 우리어문학회, 2015. 이수진, 『인간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 鄭夫安, 「東國李相國集에 나타난 李奎報의 對民 認識」, 東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8.

Abstract

Lee Kyu-bo's Posthumanism through Donggukyisanggukjip

Yun, In-hyun

This study examined posthumanism through the poetry of Baekwoon Lee Kyu-bo. Baekun expressed posthumnaism with interest in a minikin such as a fly · mouse · spider and love and hatred toward the lower class in Donggukyisanggukjip』. The reason Baekun showed love and hatred toward the lower class in a minikin of animal showed that he had conformist attitude for the nature and anxiety about his social status. Baekun lived in Goryeo military regime that began after two years after his birth. He pompously said his thought rather than being self-conscious about others. However, he fell victim to slander when he first went into government service. His pursuit of public service repetitively failed, which made him feel fear about power. In addition, he felt helpless with the reality that he could not help pulling the strings of dreadful power and felt pity for the lower class or humble living things. He found a way to survive by taking pliable attitude toward natural phenomena of eternal truth. Though this process, the affection for and interest in others opened possibilities for humanism that he did not think he was superior to others. Therefore, Beakun's blurring a boundary would be an alternative to renewing the recognition of existing species and resolving suppressive relationship between classes and finding the possibility to form a new community. This is the view of that the world needs in that it makes us reconsider the way and view to see the world and people. Therefore, it can be safely be said that Baekun's attitude is the starting point of posthumanism.

Key Word: Lee Kyu-bo, "Donggukyisanggukjip,", Posthumanism, Blurring a Boundary, Forming a New Community

『東國李相國集』을 통해 본 李奎報의 포스트휴머니즘 277

윤인현

소속 :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전자우편: yunih@inha.ac.kr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9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